

기동·통신·전자분야 防産간담회 개최



機動 · 통신·전자분야 방산간담회가 7월 11일 육군회관 모란홀에서 羅柄扇 防振會 상근부회장을 비롯한 방산업체 대표들과 崔景根 획득개발국장을 비롯한 정부측 관계관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무기체계 획득관리규정 개정과 외국인 투자기업의 방산참여기준이 제정되었음이 발표되었으며, 지난 6월 21일 産·學·官 각계 인사들의 열띤 호응속에 열렸던 방위산업대토론회의 후속조치 계획과 함께 해외 방산협력위원회의 적극 활용이 강조되었다.

또한 방산용품의 관세감면기간의 연장과 함께 획득개발정책 홍보를 위한 기자간담회 개최가 이야기 되었으며, 소련 군사 과학기술 정보 획득방안과 방위산업진흥회(防振會)의 기능 활성화 방안이 검토되었다.

이날 간담회는 업체의 건의와 정부측 답변으로 진행되었으며, 업체의 주요 건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 방산물자 착수금 지급방법 개선**

(계약시 지급하는 선금급, 종전대로 환원)

답 : 정부의 긴축재정 운영으로 현재로는 불가피하나 자금사정이 호전되면 상한율까지 지급할 계획

*** 방산물자 사전 생산 제도화**

답 : 변경이 없다는 확신이 있을때, 선별적 사전생산을 승인할 것이며, 관계부서와 철저히 검토하여 年内 해결되도록 조치

*** 방산업체 노사분규시 지체상금 면제 제도화**

답 : 금년내로 재무부와 재협의하여 조치될 수 있도록 추진(계획)

끝 으로 崔景根 획득개발국장은 현재의 간담회가 업계의 애로와 문제점 토의에 국한되어 단순화되고 있지만, 앞으로는 업체 개발품에 대한 설명과 방산정책 연구사항 발표 등을 비롯하여 다양화시킬 것을 약속하면서, 연구개발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앞으로는 國科研의 관계관도 참석하도록 하겠다고 피력하였다.

화랑대 군사연구 세미나 성황리에 열려...

— 소구경 화기 성능 및 운용 개선 —

軍 내외 소화기(小火器) 관련 종사자들의 연구결과 전파와 활용도 제고(提高)를 도모하기 위한 「소구경 화기 성능 및 운용 개선」에 관한 세미나가 7월 12일 육군사관학교 박물관 강당에서 林寅造 학교장을 비롯한 2백여명의 産·學·官 관련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군사전문(소화기부문) 세미나로서는 일반에 처음으로 공개된 이번 세미나는 총10명의 주제발표와 함께 5개 부분으로 나뉘어 2편 발표시마다 질의 응답 토론을 갖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세번째로 연단에 나선 金相鎭 실장(大宇精密연구소)은 「소화기 개발에 대한 방산업체의 역할」에 대해 발표하면서,

『우리의 방위산업이 다시한번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업체가 서로 힘을 모아 고도정밀병기에 필요한 신소재, 핵심부품 및 신기술을 집중적으로 개발하여, 차기세대 소화기와 같은 첨단병기를 수요 軍에 공급하도록 해야 할 것』

이라고 역설하였다.

또 그렇게 하기 위해 『정부 연구소는 기초 연구를 통한 핵심기술을 확보해야 하고, 방산업체는 응용기술을 습득할수 있도록 연구원에 대한 해외 기술연수등 연구능력을 키워나가야 될뿐 아니라, 각종 자체개발에 필요한 장비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나가도록 관심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이번 세미나 개최에 대해 이회각 중령(육사 병기공학과장)은 『지난 3년간 국과연과 육군사관학교가 한 팀이 되어 추진한 연구결과를 발표하여, 軍의 발전에 기여함은 물론 소화기 연구 활성화를 도모하며, 여러 의견 수렴을 통해 발전적인 계기를 만들 고져 열리게 되었다』고 밝혔다.



세미나의 주제와 발표자는 다음과 같다.

발표제목	발표자
소총의 명중율	李興周(육 사)
강내외 탄도 연구 현황	李元栢(국과연)
소화기 개발에 대한 방산업체의 역할	金相鎭(대우정밀)
소총의 총구양동 원인 분석	鄭栢基(육 사)
전투차량 탑재용 증기관총 현황 분석	李成倍(국과연)
소화기의 품질보증 기법	崔善奎(품관소)
소총의 효과성 분석	李相吉(육 사)
한국형 소화기의 개발 현황	金仁宇(국과연)
M16 소총의 사격술 개선 방안	柳原九(중행교)
차기세대 소총의 개발 추세	崔英鎭(국과연)

FY '91 수출업체 회의 열려...

防産 수출진흥과 확대를 모색하는 '91 수출업체 회의가 7월 29일 防振會 회의실에서 국방부 관계관과 (주)대우 등 18개 업체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회의 결과에 따른 대정부 중점 건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 *수출입은행 자금지원을 방산물자에 까지 확대 요망
- *국가별 수출금지, 제한, 가능여부에 대한 지침하달
- *대미(對美) 동의절차 개선 및 완화

K2 한국형 소총, 防産수출 주력품목으로 浮上



M16의 대체소화기로 軍에 보급되고 있는 K2 한국형소총이 아프리카와 동남아 등지로 해외수출의 판로(販路)를 열어가고 있다.

K2 소총은 국방과학연구소(ADD)가 15년 간에 걸쳐 독자 개발한 화기로서, 한국형 소총 개발사업은 1977년에 본격 착수되어 1984년 1월 공식무기체계로 등록되기 까지 많은 시행착오를 거쳤다.

현재 대우정밀이 생산하는 K2소총은 명중률이 정확해 스포츠건(Gun)으로도 각광을 받고 있으며, 최근 단발용으로 개조되어 미국에 수만정을 역수출하는 단계에 이르고 있다.

대우정밀의 金東鍊이사는 『K2 소총을 비롯하여 K1에서 부터 K6 중기관총에 이르기 까지 코리아 시리즈가 모두 성공적인 독자개발·자체생산 단계로 접어들었다』고 밝히면서, 『특히 K2소총이 우리와 체형이 비슷한 동남아권을 비롯하여 중남미와 아프리카국가에서 선호하고 있어, 조만간 플랜트 수출도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하였다. (朝鮮日報) 1991. 7. 30일자

F-16機 기체균열, 한국전투기 사업(KFP)과 無關

미국 제너럴 다이내믹스社의 F-16 전투기가 급속 부분의 약화로 기체에 균열이 생겨 대대적인 보수가 필요하게 되었다고 영국의 군사전문지인 <Jane's Defence Weekly>誌가 7월 23일자로 보도했다.

(J.D.W)誌에 의하면 현재 생산, 취역중인 2천9백대와 벨기에 및 노르웨이 생산라인에 있는 모든 F-16기가 정비를 받아야 할 것이라고 전하면서, 일부는 날개를 교체해야 될 것으로 추정하였다. 이의 수리비용은 약 10억 불을 상회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제너럴 다이내믹스社의 한 대변인은 F-16 전투기의 균열이 「급격한 기동 등 공격적인 전투기 운용의 결과로 발생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기체균열이 발견된 전투기는 F-16 BLOCK 40이며, 한국의 전투기 구매기종은 F-16 BLOCK 50이라고 강조하였다.

F-16 BLOCK 50은 이전의 모델보다 최대 이륙중량 및 기동성이 향상되었고, 인공위성 항법장치, 야간 저고도 침투 및 공격장비인 랜턴, 공대지 유도탄 장착등 항공전자장비 계통이 개선 보강된 최신형 항공기이다.



李鍾九 국방장관, 태풍피해 예방대책 긴급지시

태풍 「캐틀린」의 북상(北上)으로 대량피해 발생이 예상됨에 따라, 李鍾九 국방장관은 7월 29일 작전대비태세에 준하는 태풍피해 사전경보 및 복구작업에 병력과 장비를 최대한 동원하여,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라고 긴급 지시하였다.

이와함께 국방부는 태풍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서, 태풍피해지역의 예비군 교육훈련 중지 및 재해 동원을 지시하였다.

또한 태풍피해지역의 예비군에게는 '91교육훈련을 전면 면제시키고, 동원된 예비군은 동원시간에 상응한 교육훈련을 면제해 주기로 하였다.



21개국 해외파견 무관에 방위산업 현황 소개



한국 방위산업진흥회는 방산수출 활성화의 일환으로 21개국 해외파견 무관을 대상으로 우리나라 방위산업 현황과 방산수출에서의 무관역할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7월 15일 防振會 회의실에서 오리엔테이션을 가졌다.

이날 모임에서 羅柄扇 방위산업진흥회 상근부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신속한 방산물자 구매정보 획득 및 전파와 현지 수출업체 해외 활동에 적극 협조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번 모임은 전환기의 방위산업이 재도약을 모색해보기 위해 수출활성화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으로 처음있는 뜻깊은 행사였다.



우리나라, 영국 Hawk기 20대 구매

우 리나라가 영국으로부터 함대함 미사일을 도입한데 이어, 내년중으로 공군용 고등훈련기 20대를 구입한다.

영국 BAe社의 한 관계자는 7월 18일 「한국 정부가 최근 브리티시 에어로 스페이스社로부터 함대함 미사일을 도입, 실전배치를 완료한데 이어, 내년 6월까지 공군 훈련기인 호크 60시리즈 20대를 수입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朝鮮日報〉1991. 7. 19일자

「전환기의 몸살」을 앓고 있는 우리의 방위산업



우리의 방위산업이 「전환기의 몸살」을 앓고 있다.

첫번째로 지적되는 문제는 「국내 소요 물량의 한계와 수요의 불안정에 따른 가동을 저하」이며, 두번째 문제점은 「우리 방위산업의 기술능력 미흡」이다. 또한 세번째로 「세계적인 신데탕트 흐름과 이에따른 남북한 관계 개선, 특히 군비축소의 움직임」을 들수 있다.

대부분의 전문가는 이러한 문제 제기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통일이 이뤄질 때까지의 국가안보는 물론, 통일이후 주변 강대국들 틈에서 국가적 생존을 유지하려면 방위산업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결국 20년간의 급성장 끝에 일단 피크에 오른 우리 방위산업은 대폭적인 투자 확대를 통한 첨단 기술개발 여부가 활로 개척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國民日報) 1991. 6. 24일자

安保의窓 金正煥 합참, 육군 대령

〈週刊朝鮮〉 7월 14일자에서 모교수는 국토방위에 드는 막대한 인적·물적 자원을 거론하면서, 『청년학생들이 3년을 군대에서 보내지 않고 생업과 학문에 종사한다면, 이 사회가 큰 진보를 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또한 그 교수는 『전투기, 전차, 미사일, 잠수함, 총 등은 공장에서 기계로 쓰이지도 못하며, 사람들이 먹을수도 없다면서 이러한 낭비를 하면 할수록 우리의 생활은 악화되고, 국제경쟁력은 악화될수밖에 없다』고 적어 놓았다.

나는 이 글을 읽고 참으로 한심함을 금하지 못했다.

국제적 힘의 질서속에 영속적인 민족의 생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더욱더 질적으로 강력한 국가의 울타리 격인 군대를 보유하고 육성해야 한다.

일본을 보라! 지금 일본은 과거 노일전쟁을 승리로 이끈 「도고 헤이하치로」해군 원수를 위대한 인물로 화려하게 내세워, 국민학교 교과서에까지 새로이 등장시키고 있다. 또한 일본 자위대의 해외파병까지 추진할 방침이라고 한다.

인접 국가에서는 미래를 예측해서 안보의 절대적인 투자와 강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것도 모 대학 교수란 사람이 군대의 불필요성에 대한 기사를 쓰다니 참으로 걱정스러운 일이다.

(國防日報) 1991. 7. 26일자

존폐의 기로에 선 우리나라 방위산업

美·蘇·中·日의 새로 운 세력 균형 속에서 우리가 생존할수 있는 길을 모색 하는 것이야 말로 가장 시급한 과제인데 반 해, 우리의 방위산업은 위기를 맞고 있다.

이러한 난관을 타개하기 위해 지난 6월 21 일 産·學·官 각계 인사들의 의견을 수렴해 보고서 「방위산업大토론회」가 최초의 공개토 론으로 열렸으며, 방위산업의 기술이 곧 과학 기술 축적의 바탕이자 그 출발점이라는 인식 전환의 필요가 거세게 일어나고 있다.

그동안 전자, 기계, 선박등 각 산업분야에서 방위산업이 이룩한 성과와 기술파급효과는 실로 대단하였다. 문제는 오늘의 방위산업이 왜 존폐의 위기에 까지 이르렀느냐 하는 점이다. 방위산업계에서는 방위산업이 위기를 맞 게된 가장 큰 요인을 국가정책의 일관성 부족 에서 찾고 있다.

한 국방 전문가는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방산분야에서는 한가지 연구개발계획에 5

-10년이 걸리고, 1백억-5백억원 정도의 비 용이 투자되는 경우가 보통이다.

연구소의 인력도 총동원돼야 한다. 그런데 그 책임자로 임기 2년의 비(非)전문가가 온다 면 무슨 일을 할수 있겠는가?』

전문가들은 방산진흥을 위해서는 과학기술 처·국방부·상공부등으로 나뉘어 있는 분담 영역을 종합 통제하는 보다 높은 차원의 기구 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영국·이스라엘의 경우 국방연 구개발에 국방비의 5-12%를 투자하고 있고, 일본은 2.1%를 투자하고 있 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70년대 3%수준에 서 80년대에는 1.5%까지 내려갔다.

그러나 우리에게 현재 필요한 것은 수치의 상대적 비교나 앞으로 어떻게 해가겠다는 청 사진을 제시할 때는 아니라는 지적도 있다. 우선 80년대 이후 방위산업에 대한 인식부터 재정립해야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다.

月刊〈新東亞〉91/8월호

